

중국 우한시 봉쇄령...“여행경보 2단계”

기사입력 2020-01-24 00:57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진원지인 우한시를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우한 방역당국은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 기차와 버스, 페리 등 우한을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는 대중 교통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진 환자는 6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중국 우한시에 대해 여행자제를 뜻하는 여행경보 2단계를, 또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성에는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를 발령했습니다.

우한 총영사관은 현재 우한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5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우한 폐렴에 감염되거나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는 교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 대국민 사기 방지 프로젝트 '속고살지마'

▶ “자식한테도 무시당할걸”...감정노동자를 말한다

▶ 네이버 채널 KBS뉴스 구독! 시원하게 털어드립니다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56&aid=0010785539>
